CJ는 지난 1월 대파, 양파, 부추, 당근 등 야채를 얇게 저민 고기에 싸먹는 ‘야채 고기말이’를 출시했다. 얇게 썬 무에, 야채와 고기를 싸먹는 궁중요리 구절판을 응용한 육가공 신제품.

대상은 최근 스테이크와 김치를 응용한 ‘김치떡스테이크’를 내놨다. 햄버거스테이크처럼 생겼지만 전통 김치의 맛이 그대로 살아 있는 것이 특징.

닭고기 전문회사 하림도 지난달 버섯말이를 출시했고, 서양식 치킨파이에 단팥을 넣는 아이디어를 발휘하기도 했다.